

공동체 소식

사순 제 3주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버지 이름을 알려 주시니, 완고한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어,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끊임없이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3월 기도지향

- 안동현(프란치스코), 지은경(리브가) 가정
- 정수한(베드로), 김주연(세실리아) 가정

성 요셉 성월

교회는 해마다 3월을 ‘성 요셉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 요셉 성월은 성모마리아의 배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양아버지인 요셉 성인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의 삶을 묵상하는 달입니다. 하느님 뜻에 순종, 그리고 침묵,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삶을 우리도 본받고자 합니다.

사순시기 운동

- 한 가족 성경 쓰기 : 사도행전
- 주일미사 30분 전, 공동 십자가의 길
- Rice Bowl 봉헌

첫 침례 신심미사

- 첫 목요일 미사(3/7) : 오전 10시
- 첫 금요일 미사(3/8) : 오전 10시, 미사 후 십자가의 길
- 첫 토요일 미사(3/9) : 오전 10시, 미사 30분전 목주의 기도

사순 특강

- 일시 : 3/10(일) 중심미사 때
- 주제 : 루카복음에 나타난 ‘재물’의 의미

영화 상영

- 일시 : 3/17(일) 중심미사 후
- 제목 : “No Greater Love_사랑의 침묵”

기타

- 사순시기, 구역별 판공성사는 없습니다. 주일 미사 전, 개별적으로 고해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 4구역 모임 : 3/9(토) 오후6시 김석찬 미카엘 가정
16417 Birch st. Stilwell, KS 66085
- 3/10(일) 중심미사 후, 대축일 맞이 전례회의가 있습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117	213	153/174	122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안동현(프란치스코)	차호섭(요 셉)
	안지영(카타리나)	차서은(세라피나)
차주	정수한(베 드 로)	이우영(가브리엘)
	정예찬(미 카 엘)	이원준(요 한)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금주	김수연(율리안나)	정수한(베 드 로)
		김주연(세실리아)
차주	최은미(아 네 스)	정준구(파비아노)
		박혜정(카타리나)

애찬 봉사자

금주	지은경(리브가), 이대숙(사비나) 김수연(율리안나), 유경애(아네스)
차주	김명은(안젤라), 김화년(요안나) 안현숙(크리스티나), 박옥희(헬레나)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예레미야)	정수한(베 드 로)
차주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2/17	105명	388불	1,400불
2/24	103명	398불(180)	1,940불

☞ ()는 KAPA 2차 헌금입니다.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8: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농부이신 하느님께서 포도밭인 우리에게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악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스스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비와 자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태도를 새롭게 고쳐 나가기로 다짐합시다.

성화해설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피에테르 데 그레베레, 1635년, 유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영원한 생명수에 대한 담화(요한 4,1-42 참조)가 그레베레에 의해 잔잔하게 그려졌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요한 4,14) 라고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당신을 믿고 당신 안에서 샘솟는, 살아있는 물을 길어 마시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믿음의 문 2항).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탈출 3,1-8ㄱㄷ.13-15 <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



주님께서는 너 그 러 우 시 고 자 비 로 우 시 도 다

1.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내안의 온갖 것도 그 이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당신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말아라.
2. 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낫게 하시니
죽음에서 네 생명 구하여 내시고 은총과 자비로 관을 씌워 주시는 분.
3. 하느님께서는 의로운 일을 하시며 억눌린 자 권리를 도로 찾아 주시도다.
모세에게 당신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당신 일을 알리셨도다.
4. 주님께서는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매우 인자하시도다.
저 하늘이 땅에서 높고 높은 것처럼 경외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크신 그분의 자비.

제 2 독서 : 1코린 10,1-6.10-12
< 모세와 함께한 백성의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복 음 : 루카 13,1-9 <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



“콘클라베(교황 선거), 이렇게 한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2013년 2월 28일 오후 8시(한국시간 3월 1일 새벽 4시) 교황직에서 사임하면서 가톨릭교회는 ‘사도좌 공석’(sede vacante) 상태가 됐다. 전 세계의 이목을 모으고 있는 교황 선거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1) 선거인 추기경단, 교회의 보편성 드러내

콘클라베에 참석할 수 있는 선거인은 교황이 임명한 가톨릭교회의 추기경 중 사도좌가 공석이 되기 전날을 기준으로 만 80세 미만인 추기경들이다. 선거인 수는 최대 120명까지 허용하는데,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지역 출신으로 추기경단을 구성함으로써 교회의 보편성을 드러낸다(<주님의 양 떼>, 서문 참조).

2) 콘클라베 개시는 사도좌 공석 후 15-20일에, 앞당길 수도 있어

이번 교황 선거에 앞서, 추기경단 수석 추기경인 안젤로 소다노 추기경은 3월 1일(금)추기경단(College of Cardinals) 전원에게 콘클라베 소집 서한을 발송한다. 콘클라베 준비를 위한 추기경 회의는 3월 4일(월)에 시작해 매일 열린다. 콘클라베 개시일도 준비 회의에서 결정된다.

3) 성령의 도움과 자유 의지로 투표, 비밀은 영원히

교황 선출에 앞서, 추기경단은 지혜와 덕망이 높은 성직자 2인에게 ▲현재 교회가 직면한 문제점들과 ▲새 교황 선출에 필요한 분별력에 관한 두 가지 묵상자료를 요청한다. 첫째 자료는 콘클라베 개시 전에, 둘째 자료는 선거인 추기경들의 비밀엄수 맹세 후에 제공한다.

콘클라베 개시일 오전에 추기경들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이나 기타 적절한 곳)에서 교황 선출 청원 미사를 드린 뒤, 오후에는 교황궁 바오로 성당에 모여 ‘오소서, 성령님’(Veni Creator) 성가를 부르

며 선거 장소인 시스티나 성당으로 장엄하게 행렬한다. 추기경들이 수석 추기경을 필두로 1인씩 복음서에 손을 얹고 비밀 엄수와 외부개입 배제를 맹세하고 나면 외부인은 전원 퇴장하며, 수석 추기경의 선거 개시 동의에 이어 선거인 과반수가 선거 개시에 지장 없음을 판단하는 즉시 선거를 시작한다. 이때 투표와 개표를 진행할 계표인과 검표인도 추기경단 중에서 추첨으로 결정한다.

4) 3분의 2 이상 득표하면 당선

투표시 후보는 따로 선발하지 않고, 선거인 각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적는다. 투표용지는 상반부에 라틴어로 “나는 교황으로 뽑는다”(Eligo in Summum Pontificem)는 문장이 인쇄돼 있으며, 하반부에 교황으로 뽑고자 하는 이의 이름을 직접 쓰게 돼 있다. 투표는 선거인 전체의 3분의 2 이상 득표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한다.

선출이 이뤄지면, 수석 추기경이나 최고령 추기경이 선거인단을 대표해 교황직 수락동의를 구한 다음, 동의를 받는 즉시 교황 이름을 묻는다.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등의 이름도 이때 정해진 것이다. 이어 교황 전례원장이 의전담당 사제 2인을 증인으로 삼고, 새 교황의 수락과 그가 택한 이름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한다. 피선거자가 당선을 동의하는 즉시 콘클라베는 종료된다.

선거인 추기경들은 새로 선출된 교황에게 경의와 순종을 표하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 다음, 수석 부제 추기경이 밖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새 교황의 선출 사실과 이름을 공포한다. 이어 새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서 로마와 전 세계에(Urbiet Orbi) 사도적 축복을 내린다.

- C.B.C.K 보도 자료 요약 -



한 줄의 끈 - 자기연민



모파상이 쓴 『한 줄의 끈』에는 메토르 오세코르네라고 하는 노르만인 농부이야기가 나온다. 30세의 농부는 며칠씩한 시장거리를 걷다 ‘한 줄의 끈’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몸을 구부려 그것을 주워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마침 그 행동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주변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하자 오세코르네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결국 그 지방의 경찰서에 끌려간다. 그곳에서 그는 주은 ‘한 줄의 끈’을 꺼내서 보여줬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다음날 지갑이 발견됨으로써 이 사건은 깨끗이 잊혀 지게 되었다. 물론 오세코르네 이외의 사람들에게만...

오세코르네는 누명을 썼던 그 사건의 불공평함을 생각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식으로 치욕을 받았는가를 불평하며 다녔다.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 ‘한 줄의 끈’ 뿐이었다. 그는 농사를 짓는 것도 잊어버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 연민의 독약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를 파괴해갔다. 늙어서까지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오세코르네는, 죽을 때까지 ‘한 줄의 끈’ 사건에 대해 푸념하며 숨을 거두었다.

불가피한 일에 대항하기를 멈추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시간, 에너지 그리고 창의력을 갖게 된다. 불가피한 일은 받아들여라.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다.



제2장 사도신경



21. 하느님께서 섭리로 피조물을 돌보신다면 악은 왜 존재할까요?

이 세상에 전쟁과 폭력, 고통과 질병 등과 같은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악을 창조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악을 용인하셨습니다. 피조물이 그 완성에 도달할 때까지는, 물리적 선은 물리적악과 공존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310항).

‘악이 왜 존재하느냐?’ 하는 절박하고도 피할 수 없으며, 고통스럽고도 신비한 이 질문에 그 어떤 성급한 대답도 충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전체가 이질문에 대한 답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309항).

성경에 보면 하느님께서 인간 악한 행위마저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밈지만, 하느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려는 것이었습니다”(창세 45,8; 50,20). 바오로 사도도 하느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로마 8,28)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토마스 모어 성인은 순교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자신의 딸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 비록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매우 나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이다”(성 토마스 모어).